

卽非 논리로 깨달음 세계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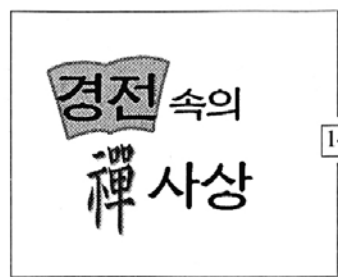
금강경 ②

글쓴이



정호영 (충북대 철학과 교수)

나 우리는 ②에 대해 의아하게 여긴다. 논리학의 기본원칙인 모순을 즉 'A는 비(非)A가 아니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A는 비A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A가 곧 A가 아니다'라



14

지성·상식 타파하는 부정에서 출발 주판배제 '있는 그대로의 진여' 가르쳐

고 하는가. 그러나 반야사상은 ②에서와 같이 우리의 지성과 상식의 울타리를 돌파하는 데서 출발한다. ①은 우리에게 상식을 가르쳐 주지만, ②는 우리에게 상식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근본적으로 반성해 볼 수 있는 부정의 정신을 심어준다. 여기에서 우리는 달멸마,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지게 된다. 하나의 주장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성립하기 때문이다. 상식에 따르자니 엄연히 반성이 존재하고, 반성을 따르자니 상식이 저항하는 꼴이다. 선종에서의 화두·공안은 바로 이와 같

은 기능을 갖는다. 화두는 우리를 상식에 어긋나는 상황으로 인도한다. 심지어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부처님의 말씀에 대립되는 것을 제시하기도 한다. 유명한 조주(趙州, 778-897)스님의 무자(無字) 화두가 그것이다. '모든 중생에 불성이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던 조주 문하의 한 스님이 비루먹은 개를 보고 저렇게 천한 것에도 과연 불성이 있는 것일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 그가 조주스님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제기했을 때 스님의 답변은 의외로 '없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의문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부처님은 있었다 하시는데, 우리 스님은 없다고 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관념에서 벗어나 삶의 세계, 사실의 세계로 돌아오도록만 해결된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고 하는 바와 같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한다. 변화라는 것은 차이성과 동일성이 공존함을 전제로 한다. 우리의 삶도 생과 사가 겹쳐 있다. 살아가는 과정이 곧 죽어 가는 과정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세계도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적극적으로 말하여 모순이야말로 세계의 실상이다. 관념에서의 모순은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세계를 대립과 갈등의 구조로 파악한다. 그러나 삶의 세계에서는 모순이 공존하며 나아가 서로 서로 스며들어 하나를 이룬다. A는 A이면서 동시에 비A인 것이다. ③에서 A가 다시 긍정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반성을 경유하여 확인되고 있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인식이다. 이것은 주관의 왜곡됨이 없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깨달음의 세계, 진여(眞如, tathata)의 세계에 다름 아니다. 금강경의 이러한 사상은 즉비(卽非)의 논리로 풀리기도 한다. 즉비의 논리는 금강경의 핵심사상이면서 반야사상의 근간을 이룬다. 나아가 선사상에도 깊이 침투하여 화두의 형식으로 귀결되고 있다. 우리는 송나라 청원유신(靑原惟信) 스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스님의 말씀은 '30년전 참선 공부 할기 전에는 산은 산, 물은 물이더니 여러 선지식을 참견하고 조금 깨친 바로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온전히 깨치고 보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리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이해함으로써 이 유신스님의 수행과정, 깨달음의 세계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13

바야바타민다문헌 ③

불교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불교의 모든 학파에 공통되는 것이며, 불교적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 부처님 가르침 즉, 불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침 가운데 서로 차이점을 찾아내고, 이것이 우리의 감각으로 식별되는 사물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다수 불교학자들과 불자들은 그들의 주변에 있는 일상의 감각적 사물들이 그릇된 외관이라고 간주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불법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부분 무지 때문에 우리의 시야에서 가려져 있고, 지혜라는 특별한 덕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한다. 반야의 세계에서는 일상적 감각에 의해서 얻어진 자료들을 궁극적인 사실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현대 물리학의 명제들은 추상적인 실재나 혹은 원자, 미립자, 전자장과 같은 '구조물'에 관해서 언급하며, 그것의 속성, 경향, 습관적 행위 등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일상의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자료보다 지성적이며 근본적인 개념으로 되돌아 간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불교학도 세계가 불법이라고 불리우는 단순한 궁극자의 끊임없는 흐름으로 이루어졌다고 간주한다. 그 궁극자는 다양하고 순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상호 조건적인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집착·욕망이 사물관찰 방해 생성·소멸 바로보는 눈 지혜

불교적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섯 가지의 덕과 마찬가지로 불법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감각을 세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분화는 사람과 사물 모두 적용된다. 그런데 세분화를 시도할 때는 한 가지의 장애를 만난다. '나', '나의 것' 등에 대한 집착이다. 그것은 사건, 조건, 활동, 자료 등의 위에서 비교적 독립적이고 다소 지속적인 사물의 체계를 우리의 상상에 의해서 덧붙이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유럽의 철학자 가운데 베르그송은 '구체화'가 '사실'을 어디까지 왜곡시킬 수 있는지를 충분히 논증했다. 그에 따르면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공평무사하게 고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건을 이용하려는 욕망 때문에 이러한 왜곡이 생긴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 주었다. 사실 베르그송은 그때까지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직관'이라는 애매한 개념을 가지고 사물의 세계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백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점을 제외하고는 베르그송의 저서들은 서양인들에게 불법에 대한 훌륭한 안내서가 됐다. 만일 수행자가 사물의 생성과 소멸을 관찰할 수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지속되고 사라지는가'를 고찰할 수 있고, '그것들이 아무데서도 오지 않고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고 하는 흔한 전형구에 동의할 수 있다면, 수행자의 시야에는 불법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명상 수행이 쌓인 후에는 이 전형구가 매우 자명해졌지만, 그러한 수행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마음을 다스리는 못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몇 마디의 말로 결코 전달할 수는 없다. '불법'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따른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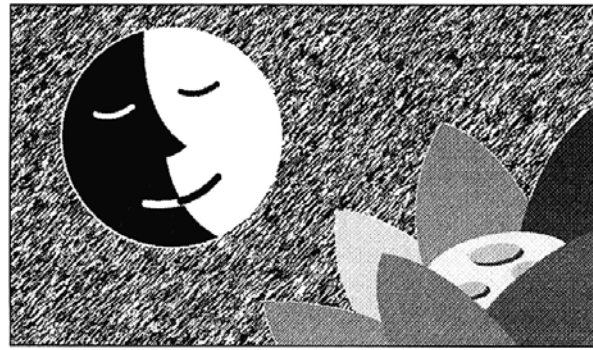
과학산책

항생제와 세균

전세계의 반이 넘는 지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도 항생제를 살 수 있다고 한다. 아니,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항생제 남용은 병원균들이 항생제에 대해 저항성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되므로 항생제 남용이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불찰자인 우리는 모든 생물이든 증생들이든 연민을 느끼도록 배웠다. 이들 세균들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이들 또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저항하고 있다. 이들과 공존하여 살아가는 방법은 진정 없는 것인가?

항생제에 대한 저항은 세균들이 그들 환경에 등장한 화학적 위협에 저항하여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밝혀졌다. 이들 방어 매커니즘은 많은 종류의 생물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염성 질병과 농업물 부패에 관해서만 바라본 세균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저항이란 주제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점으로 대체되어 왔다. 즉, 병원

균이 항생제,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항바이러스 작용제에 대해 다 른 생명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보호하고 이들에 저항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항생제 저항 유전자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아마도 원래는 항생물질을 생산하던 유기체일 것이다. 다소 이상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이는 논리적이다. 어떤 박테리아가 벡테리아의 세포벽을 파괴하는 화학성분을 만들었다고 가정하자. 박테리아는 이 성분에 대하여는 화학적 방어 물질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만든 물질에 의해 자신의 세포벽이 파괴되고 만다. 이 가정은 단지 논리적 일 뿐 아니라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우리는 항생물질을 만드는 많은 박테리아에서 이들 항생물질에 대해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



성을 보이는 병원균을 정복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항생제를 변형시킬 때도 나타난다. 이 경우 박테리아는 이미 기존의 항생제를 무력화시키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새로 변형된 항생 물질에 대한 저항력을 얻기 위해 돌연변이를 한다. 그러나 박테리아는 단순한 돌연변이보다 훨씬 더 영리한 방법을 취한다. 더욱 확률이 높은 이 방법은 항생제에 저항하거나 항생제를 파괴할 수 있는 생화학적 비 밀들을 담은 저항 유전자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저항 플라스미드(plasmid, 박테리아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고리모양의 작은 DNA)가 하나의 박테리아로부터

나오고 다른 박테리아들은 이를 받아들인다. 받아들인 쪽은 자신의 플라스미드를 방출하도록 자극된다. 이 교환 능력은 박테리아에게 다른 박테리아로부터 DNA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공생생물인 것이다. 생존을 위해 항생제를 격퇴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박테리아들은 어떤 박테리아라도 다른 박테리아로부터 유전자를 얻을 수 있도록 서로 유전자를 공유한다. 미들리라고 여기는 세균들도 자기의 일부를 내놓는 공유라는 방식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데 자기를 녹이는 불자들이 일어 줄어 무엇이냐?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병원균도 살아있는 생명체 항생제에 저항 자기보호 돌연변이 유전자 공유 생존

요한 질문이다. 분자 생물학은 우리에게 비록 정부는 아니지만 저항 매커니즘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돌연변이에 의해 박테리아가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돌연변이는 약물 회사들이 저항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단청불사 · 천일기도 六百日 전국 禪院長 · 祖室 · 方丈 큰스님 특별초청

모시는 말씀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제)선학원 중앙선원은 송만공, 만해 한용운, 백용성 큰스님들께서 화주가 되어 창설되었습니다. 선학원은 3·1운동을 주도한 국운장송의 원장이며 해방 이후에는 이효봉, 허동산, 정경오, 이철담 대선사에서 한국불교계 정화불사를 이끌어 오셨던 조계종 전통 중단을 중흥케 한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선학원이 한국선종불교의 성지인 온자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이 時代의 佛敎 聖地인 禪院에는 특히 李成桂 太祖大王의 王師로 계신 無學大師께서 300여 년 전 창덕궁(지금의 비원)의 벽도를 가지고 송만공 큰스님께서 손수 조성한 부처님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선학원 부처님 외에 또 한 분의 부처님은 현재 수덕사 정혜선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선학원은 여러 명안조사님의 정기가 서려 있는 곳으로 또한 선학원 중앙선원이 동·하안거 방합록에 전국선원 중 제일 먼저 설려 있던 시절이 있었음을 돌이켜 본 때 선학원의 禪風이 일면 한국 禪宗佛敎가 흥하고 선학원의 위세가 가라앉으면 한국 禪宗佛敎가 혼돈을 겪는 것을 지켜본 후예로서 웃음을 여미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월달에 발원하며 24년 만의 선학원 단청불사를 계기로 살아 한국 선종불교 중흥 도량이 될 선학원 대적불사 서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時代의 佛敎聖地 歷史의인 佛敎에 善男善女 여러분 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고 단청불사 千日기도 동참공덕으로 가정의 평안과 고과 액이 소멸되어 다행다복한 주인공이 되시옵길 축원합니다.

아 래
주최처 八公山 桐華寺 祖室 眞際 大禪師
산림설법 삼장법사 윤성해대법사(선학원 중앙선원장)
■ 때 : 1999년 음 3월 3일(양 4월 18일) 일요일 오전 11시
■ 곳 : 한국불교 선학원 중앙선원 큰 법당
■ 주최 : 한국불교 선학원 중앙선원 · 화주단
■ 주관 : 신도회 · 운영위원회 · 합창단 · 108보리심회 · 선정회 · 청년회
■ 문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40
TEL. 732-3327, 720-8583, 720-8584
불기 2543년 음 3월 3일
한국불교 선학원 중앙선원 원장 삼장법사 윤성해 합장

千日기도 六百日大法會 제7회 한국불교전통선(禪)중흥영산대설법회상

八公山 桐華寺 祖室 眞際 大禪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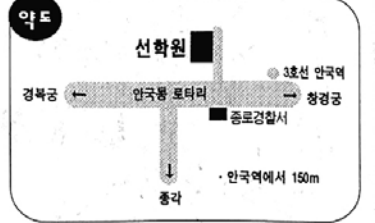


팔공산 동화사 조실 진계 대선사

선학원 중앙선원 중흥불사 개요

- 1차 ① 기와 개수공사 완료 ② 내부 페인트 공사 완료 ③ 단청불사(24년만의 불사) 완료 ④ 선학원 선방 및 시민선실 내부공사 완료 ⑤ 가스배관공사 및 보일러시설(5개)을 하나로 하는 공사 완료 ⑥ 일주초 전통양식 건물공사 ⑦ 선학원중앙선원 단청불사, 중흥불사 千日기도 三百日 전국선원장 · 조실 · 방장큰스님 특별초청 韓國佛敎傳統禪中興靈山大設法會上主權 제1회~제10회(매 백일간격으로) 초청법사 · 제1회 활약상 지사 조실 전관용 대선사 1997. 7. 4(양 8. 3) 성만 · 제2회 법수선원 조실 이철수 대선사 1997. 11. 13(양 12. 12) 성만 · 제3회 선학원 중앙선원 조실 이철수 대선사 1998. 2. 23(양 3. 21) 성만 · 제4회 송광사 조계종림 방장 법일법사 대선사 1998. 윤 5. 3(양 6. 26) 성만 · 제5회 회계사 조실 송신형 대선사 1998. 8. 13(양 10. 3) 성만 · 제6회 진계종 중흥 송사암 대법사 1998. 11. 23(양 1. 10) 성만
- ⑧ 선학원 창건 사적비 세움 (3.1 운동주도 구국원찰)
⑨ 한국불교계 정회사 刊行 및 이 時代 佛敎聖地 宣布法會

- ◆학 주 단
원장현실 손연익 오만덕 박보리선 권기예실 이보현실 박덕순화 이광덕 이권용형
박선현실 김복덕성 윤보광실 민길상실 송경현 실 송운 김도원형 김마하민 유경혜성
송신덕성 정선덕성 정본덕성 이법장자 이지혜장 고민덕성 이보현실 운영위원 및 합창단원
- ◆신 도 의
명 예 회 장 영무영월 양보태원 이연희실 이경희 김명성형 임공덕화 정본덕성
이관용형 이관용형 최 복 쇠 유경혜성 황가재실
회 회 이만자형 최복쇠 이법원자
부 부 신선지형 신원명실
주 주 손진여실
재 재 박선현화
감 감 권범연화
감 감 이만자형
감 감 유정혜성
감 감 최희부식
감 감 황가재실
운 운영위원
영 영 임공덕화
원 원 김진실형
장 장 김진실형
단 단 최희부식
합 합 최희부식
참 참 최희부식
향 향 최희부식
사 사 최희부식
회 회 최희부식
정 정 최희부식
청 청 최희부식
년 년 최희부식
회 회 최희부식
장 장 최희부식



전철노선: 3호선 안국역 하차
버스노선: 안국동 종로경찰서 하차 (84, 8-1, 205, 543, 2, 8, 20, 153)